



# “니들이 인기 맛을 알아?”

tvN ‘디어 마이 프렌즈’ 짠들이 끈대 석균 역 신구  
맛깔스런 꼬장 연기·가슴 속 사연 등 시청자 공감

“석균이, 난 매력 있던데? 그놈은 원래 그런 놈이야.”  
올해 여든의 배우 신구는 석균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깔깔 웃었다. 석균은 tvN 금토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신구가 맡은 자린고비 마초 ‘끈대 영감’이다. 못되고 심술궂기가 뽀짝가라면 서러운 이 ‘영감’이 나타난다면 현실에서는 100m 앞에서 도망가고 싶어질 것 같다.

“너 결혼은 했나?”, “너 작가라며? 소설은 썼어?”, “희자가 성재랑 잤나, 안 잤나?”라며 다짜고짜 무례하게 시비를 걸고, 평생 고생시킨 조강지처에게는 지금까지도 사사건건 고압적이다.

그런데 그런 석균의 캐릭터가 시청자들에게는 인기가. 신구의 꼬장꼬장한 연기가 맛깔스럽고, 석균이 차마 표현은 하지 않고 가슴에 품어둔 사연들이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못된 자린고비 석균이 요즘 인기다”는 질문에 그는 “나는 석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살아온 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다. 대책없고 까다로운 인물로 보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아니잖나. 아주 어려운 집안으로 예닐곱 형제를 건사하며 살아야 했으니 돈을 아끼고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나. 가방 끈이 짊어져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질 수도 없으니 절약이 몸에 배었다”고 말했다.

그래도 부인한테는 너무 한 거 아닌가라는 말에는 “아니, 결혼하면서야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누구나 하지 않나.(웃음) 부인한테 당치않게 까칠하게 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윗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세대에서는 답답하다 싶을 만큼 권위적이고 완고한 남자 많다. 요즘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까칠한 캐릭터일 수 있지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고 소개했다.

“석균이는 돈 벌어서 지금껏 형제들에게 나눠주며 살고 지금도 돌보고 있어요. 그러니 수중에 돈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남 지독하게 살았구나’라며 누우치고 반성하면서 뒤늦게 절이 들 것 같은 캐릭터예요.”

큰딸 순영이를 생각하는 석균의 속마음이 드러난 게 감동을 전해줬다. 극 중에서 순영이를 때린 사위 차를 때려 부수기도 했다. 이에 신구는 “비록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석균이 ‘그거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하는 생각에 순영이에 대한 마음이 애뜻하다. 사위놈이 평소 자기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순영이 맞고 사지가 전혀 모르다가 뒤늦게 알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다. 차 때려 부수는 액션 연기 괜찮았다. 안 힘들었다”고 웃었다.

신구는 2002년 ‘니들이 게맛을 알아?’로 유명한 광고로 코믹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했었는데, 석균 역으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다시 인기다. “실제로 ‘니들이 게맛을 알아’와 정반대 이미지라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연기자는 역이 어떠냐에 따라 변신하는 것 아니겠어요?. 배우는 어떤 하나의 모양이나 색깔에 매몰되면 안 돼요. 다양한 역할에 적응하고 최대한 그 캐릭터에 가깝게 가는 게 배우니까요.”

오랜 세월 호흡을 맞춘 동료들과 연기하는 게 즐거울 것 같다는 질문에 “그거야 말해 뭐해. 분위기가 아주 좋다. 연기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모였고, 드라마 내용도 충실하고 좋다. 다들 베테랑이라 호흡도 아주 잘 맞아서 촬영 시간도 길지 않다. 그중에서도 나만의 씨와는 연극도 같이 해보고 했는데 이번에 부부 연기를 또 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신구(80)가 최연장자다. 김영옥(79), 나문희(75), 김혜자(75), 주연(73), 윤여정(69), 박원숙(67), 고두심(65)이 그 뒤를 잇고, 이들을 수발하는 막내 고현정은 ‘불교’ 45세다.

끝으로 드라마 인기비결에 대해서는 “노희경 작가의 글이 좋다. 우리 ‘노랄’들의 마음을 잘 읽고 표현했다. 이번에 처음 같이 해보는데 대본이 참 좋다. 심지어 16부 대본이 다 나와 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귀감도 되고 좋다. 사랑 찡고 까부는 것보다 훨씬 느낌이 있다. 젊은 이들이 봐서 손에 볼 게 없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고 설명했다.

# “벼랑 끝 동아줄 같았어요”

EXID 하니 ‘직캠’ 2000만 뷰어 돌파

결그룹 이엑스아이디(EXID) 하니의 ‘직캠’(맨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2000만 뷰를 돌파했다. 소속사 바나나컬처는 “‘역주행’ 신화를 일궈낸 하니의 ‘위아래’ 직캠 조회수가 지난 5일 오전 2000만 뷰를 넘어섰다”며 “유튜브에 등록된 직캠 조회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하니의 직캠은 지난 2014년 10월 8일 경기도 파주 한 마을 위문공연에서 ‘위아래’ 무대를 한 팬이 직접 카메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다.

이 영상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퍼져 나가며 큰 반향을 일으켰고 주목받지 못하던 ‘위아래’는 음원차트에서 역주행을 하며 1위로 우뚝 서는 기염을 토했다.

하니는 “아직도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놀랍고 감사하다”며 “동영상을 볼 때면 어려웠던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생각난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직캠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직캠은 벼랑 끝에 있던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린 동아줄과 같았다”며 “그 영상을 통해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성장하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엑스아이디는 최근 발표한 신곡 ‘엘라이’(L.I.E)로 활동 중이다. /연합뉴스



# ‘아가씨’ 200만명 돌파...청불 영화 신기록 써 간다

(청소년관람불가)

## 청불 영화 중 최단기간

박찬욱 감독의 신작 ‘아가씨’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 중 최단 기간에 관객 2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 질주를 하고 있다.

6일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가씨’는 이날 오후 1시 현재 누적 관객 수가 200만584명으로 집계됐다.

‘아가씨’는 개봉 이래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해오다 개봉 6일째 관객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 중 ‘내부자들’이 수립한 기록과 같다.

단, ‘내부자들’은 정식 개봉일인 지난해 11월 19일의 전날 저녁에 개봉해 동원한 관객 수 9만여명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가씨’가 가장 빠른 시기에 200만명 고지에 오른 셈이다.

‘내부자들’의 개봉 6일째 누적 관객 수는 201만2551명으



로, 전야 개봉 관객 수를 빼면 200만명에 못 미친다.

‘아가씨’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을 배경으로,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후견인인 이모부 고우즈키(조진웅 분)의 보호를 받는 히데코(김민희), 그리고 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백작(하정우)과 백작의 의뢰를 받고 재산 탈취에 동참한 하녀 숙희(김태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윤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월에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25 TV 블로그 꿈지락 30 TV블로그 꿈지락 (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2016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아르헨티나: 칠레)	00 월화특별기획 (몬스터)(재)	00 닥터 365 05 세기의라이벌 미려를 만든 천재들(재)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50 안녕 우리말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재) 55 토크 콘서트 화통(재)
12	00 KBS 뉴스 12		20 문화사색(재)	55 TV블로그 꿈지락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별빛가족	00 1대100(재)	05 내꺼야 풀록 30 푸리가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2	00 현충일 기획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MBC 뉴스 10 특? 특! 키즈스쿨 55 아빠 어릴 적엔	00 3시, 뉴스브리핑
3	00 KBS 스페셜(재) 55 트랜스월드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30 TV유치원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푸리가 탐구생활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라(재)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여년의 성)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킹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1대100	30 리얼스토리 논	
9	00 KBS 뉴스9		00 월화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대박)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백희가 돌아왔다)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우리동네 예제능	10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 라인
12	20 해외걸작다큐 (러시아 기행 1부)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공부 말고 넓은 세상이 나가라》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05:30 건강안아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세계사 시간여행	《한 그릇 후루룩》
05:4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김덕너의 열일이 배우김치와 깻잎 김치》	15:30 피터레빗	20:50 세계테마기행
《동남아 섬 기행		15:40 꼬마기사 마이크(재)	《이탈리아 르네상스 기행 2부
《필리핀 필리핀, 보홀》	11:00 세계테마기행(재)	15:50 뽀로로와 노래해요	《오 피렌체》
06:10 EBS 특별기획 통찰(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코코몽3	21:30 한국기행
07:00 레이디 비그	12:10 시대공간(재)	16:30 코코코 다코(재)	《두근두근 남만로드》
07:30 로보카 폴리	12:40 지식채널e	16:45 똥똥똥 유치원1~3(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7:45 뽀뽀뽀 뽀로로	12:45 자선만민, 행복 육아 콘서트	17:30 뽀뽀뽀 뽀로로	《생존의 비밀 2부
08:00 똥똥똥 유치원1~3	13:35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	17:45 로보카 폴리	《초원의 승부사, 사자》
08:45 코코코 다코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4	22: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9:00 코코몽3	13:50 원더볼즈	19:00 레이디 비그(재)	《대나무 때꾼, 아버지와 아들》
09:30 원더볼즈	14:00 로보카 폴리	19:30 EBS뉴스	23:35 시대공간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14:30 허풍선이 과학소	19:50 극한직업 (섬진강 재첩잡이)	24:05 지식채널e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7일(음 5월 3일 庚申)

子	48년생 어중간하여 이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할 수다. 60년생 지숙적인 노력만이 목적을 달성케 할 것이라. 72년생 소모 적어리던 한시 바빠 선회하라. 84년생 아직 설악었으니 입이 즐겁지 못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2, 65	午	42년생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도가 보인다. 54년생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청산하는 것이 옳다. 66년생 맹점이 보완되었을 때 성사된다는 것을 알아. 78년생 친분과 신용도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알고 냉철하게 임하라. 행운의 숫자 : 41, 80
丑	49년생 중저대하고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이르렀다. 61년생 인고의 극면 뒤에 성취의 기쁨을 만끽한다. 73년생 핵심적인 내용을 빼뜨릴 수 있으니 차분해야 할 것이다. 85년생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한 현상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2, 36	未	43년생 파격적인 국제사이다. 55년생 마음은 있지만 시간이나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문제다. 67년생 바탕이 빈약하니 기본에 충실함이 순조로운 것이니라. 79년생 뻔한 일면서도 팔려들어 가고 있는 형세이다. 행운의 숫자 : 73, 93
寅	50년생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는 성국이 조성된다. 62년생 상대에게 이익을 줘야 성립하니라. 74년생 감안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요제가 된다. 86년생 일방적이려면 경직되거나 건조해 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6, 27	申	44년생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56년생 지금의 고통은 내일의 행복을 기약하라. 68년생 실효적인 추가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80년생 어떻게 처세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된다. 행운의 숫자 : 25, 76
卯	51년생 주관적인 심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겠다. 63년생 번번이 실망시키는 원인이 심심찮게 나타나는 바람에 애를 먹겠다. 75년생 다양하게 구사해 보자. 87년생 기본 진로는 안전하지만 비보호 좌회전 있다는 사실을 알아. 행운의 숫자 : 78, 39	酉	45년생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니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57년생 공과 사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옳다. 69년생 지지 기반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도 있다. 81년생 의심스럽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아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19, 16
辰	40년생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단서를 포착하게 된다. 52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 64년생 난해하게 형용어지는 행국이다. 76년생 신중하게 선택하라. 88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26, 21	戌	46년생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58년생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방도가 없다. 70년생 반복되면서 열 틈을 주지 않는다. 82년생 우선 차분하게 지켜본 연후에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4, 63
巳	41년생 당황하지만 않으면 무난할 것이니라. 53년생 이미 기다이 잡고 있다. 65년생 모순된다면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 77년생 타당고 논의해야만 수긍하게 된다. 89년생 상서로운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29, 35	亥	47년생 정리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59년생 실계전에서만 노닐던 불교가가 큰물을 만났으니 즐거우리라. 71년생 하자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83년생 조금씩이지만 기운은 발전적이고 세차다. 행운의 숫자 : 60, 9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